

삼성전자 ‘테크포럼·개발자 콘퍼런스’

한종희 “집안의 모든 제품 AI 적용”

(삼성전자 부회장)

일상에서 활용 가능한 AI 등 논의 ‘스마트싱스 허브’ 확대 적용 검토 “고도화된 개인화 경험 준비할 것”

“삼성 ‘인재제일’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수년간의 조직문화 혁신을 해왔습니다. 많은 인재와 AI를 통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혁될지 기대됩니다”

한종희 삼성전자 DX부문장 대표이사 부회장은 4일(현지시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개최한 ‘2024 테크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올해 6회째를 맞이하는 테크 포럼은 외부 리더급 인재들을 초청해 주요 사업 방향 및 연구 분야를 소개하고 기술 트렌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한 부회장은 “삼성전자는 삶을 보다 편리하게 하는 AI를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모두를 위한 AI를 통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또 한 번 변혁될지 많은 인재들과 함께하는 삼성의 미래가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삼성전자는 ‘인재제일’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수년간의 조직문화 혁신을 통해 임직원들의 자긍심과 만족도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설명하며 “삼성전자가 그리는 현재와 미래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행사에는 미국 현지 글로벌 기업의 리더급 개발자와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 용석우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장 사장, 김우준 네트워크사업부장 사장, 전



삼성전자 DX부문장 한종희 대표이사 부회장이 4일(현지시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열린 ‘2024 테크 포럼’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삼성전자

경훈 삼성리서치장 사장, 이영희 글로벌 마케팅실장 사장, 박학규 경영지원실장 사장 등 총 9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쉽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AI(인공지능)’를 주제로 삼성전자 주요 사업부와 연구소의 임원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한 부회장은 전일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삼성 개발자 콘퍼런스(SDC) 2024’를 열고 집안의 모든 제품군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TV, 스마트 모니터 등에 내장된 스마트싱스 허브를 스크린이 탑재된 다른 가전들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한 부회장은 기조연설에서 “향후 ‘누가 말하는지’, ‘어느 공간에 있는지’까지 인지해 고도화된 개인화 경험이 가능하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족 구성원들의 음성만을 인식해

외부인이 기기를 제어할 수 없게 하고, 집안의 연결 기기와 센서가 집안 사용자의 위치를 감지해 사용 패턴에 맞춰 온·습도를 조절하는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추진한다.

한 부회장은 TV·스마트 모니터·비스포크 AI 패밀리허브 냉장고 등에 내장된 가전 연결 플랫폼 ‘스마트싱스 허브’를 스크린이 탑재된 가전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별도 허브 없이 타사 기기를 연결하고 ‘엣지 AI’ 기술로 연결 기기의 AI 기능을 강화한다.

삼성전자는 내년부터 모바일 뿐만 아니라 TV, 가전 등 삼성전자 주요 제품군의 소프트웨어 명칭을 ‘One UI’로 통합한다. 제품별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최대 7년까지 보장해 최신 기능을 사용하도록 한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83만원 공개매수 맞불... ‘승자의 저주’ 우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양측 극한 대립... ‘쩐의 전쟁’ 확산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MBK)의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시간이 흐를수록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최근 고려아연의 최윤범 회장이 고려아연 공개매수 가격을 83만원으로 높이자 영풍·MBK 연합 역시 공개매수 신고서 정정 공시를 내고 맞불에 맞불을 놓았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영풍·MBK파트너스는 4일 고려아연 공개매수가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과 동일한 83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들은 이날 공개매수 신고서 정정 공시를 내고 지난 달 13일 시작한 고려아연 공개매수의 조건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개매수 청약 수량이 발행 주식총수의 약 7%를 넘어야 사들이겠다고 한 조건도 삭제했다. 가격과 조건을 모두 최 회장 측이 진행하는 공개매수와 동등하게 맞춘 것이다.

최대 매수 수량은 302만4881주(약 14.6%)로 이전과 동일하다. 청약 주수가 최대 매수 수량 미만일 경우에도

응모한 주식 전량을 매수하며, 최대 매수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매수 수량만큼만 안분비례해 매수한다.

이에 따라 영풍·MBK 연합의 고려아연 공개매수대금은 기존 약 2조2700억원에서 2조5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영풍·MBK 연합이 공개매수 조건을 변경하면서 오는 6일 종료 예정이었던 공개매수기간은 이달 14일로 연장됐다.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 공개매수 마감일은 23일이다.

한편 업계에서는 양측의 수싸움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승자의 저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양측이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인 만큼 추가로 천문학적 돈이 들어가는 사상 초유의 쩐의 전쟁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MBK·영풍이 고려아연 공개매수대금으로 치러야 할 금액은 기존 약 2조2700억원에서 2조5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최 회장 측도 우군인 베인캐피탈의 지원까지 합해 3조1000억원이 넘는 돈을 공개매수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고려아연이 활용할 자금은 대부분 단기 차입금으로 구성돼 회사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양성운 기자 ysw@

완성차업계, 전기차 전략모델 프로모션 강화

현대차 ‘EV 에브리 페스타’ 진행 기아 차량 할인, 충전기 설치 지원 KGM 최대 300만원 할인 혜택

8967대를 기록했다. 지난달 완성차 5사의 내수 판매량은 10만 5448대로 전년 동기 대비 0.9% 감소했다.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침체기를 맞은 내수 시장 활성화에 나선다. 특히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을 돌파하기 위해 전기차 할인에 적극 나선다.

완성차 업계는 올 하반기에도 자동차 시장에 불어온 한파로 부진한 판매 실적을 기록했으며 전기차 포비아(공포)와 캐즘 등으로 판매량이 주춤하자 각자의 전략 모델을 중심으로 반등을 위한 프로모션을 확대하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완성차 5사의 판매 대수는 64만 8895대로 전년 동기 대비 3.7% 감소했다. 업체별로는 현대자동차 34만 3824대, 기아 24만 9842대, 르노코리아 8625대, KG모빌리티(KGM) 7637대, 한국GM 3만

완성차 업계는 위기에 빠진 전기차 시장 분위기 반등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현대차는 오는 31일까지 ‘EV 에브리 페스타’를 진행한다. 아이오닉 5, 아이오닉 5 N, 아이오닉 6, 코나 EV 등 전기차 구매 시 200만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현대차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 GV60은 300만원 할인한다.

기아도 ‘EV 페스타’를 통해 전기차에 대한 혜택을 대폭 늘렸다. 기아 전기를 구매하는 고객은 차량 가격 할인과 충전기 설치 비용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KGM도 10월 한달 동안 전기차 페스타를 진행한다. 차량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양성운 기자

현대차, 글로벌 ‘자율주행 파운드리’ 시동

웨이모 파트너십... 아이오닉 5 공급 ‘웨이모 원’ 서비스 성장 지원 계획

현대자동차가 구글의 자율주행기업 웨이모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무인운전 택시) 공개를 일주일여 앞두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와 웨이모가 자율주행 차량을 생산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자율주행 기술, 생산 경쟁에 돌입한 것이다.

6일 현대차에 따르면 웨이모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웨이모의 6세대 완전 자율주행 기술 ‘웨이모 드라이버’를 아이오닉 5에 적용한 뒤, 해당 차량을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 ‘웨이모 원’에 투입한다. 그동안 차량을 생산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이제는 자율주행 기업에 차량을 납품하는 ‘자율주행 차량 파운드리(위탁생산)’로 사업 영역을 확장한 것이다. 현대차는 지난 8월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자율주행 파운드리’ 영역으로 진출을 선언한 바 있다.

웨이모에 공급되는 아이오닉 5는 조지아에 위치한 전기차 전용공장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 A)’에서 생산될 예정이며, 현대차는 안정적인 공급 운영을 통해 ‘웨이모 원’



현대차가 자율주행 선도 기업인 구글 웨이모에 공급할 자율주행 차량 ‘아이오닉5’의 주행 모습 /현대차

서비스의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양사는 2025년 말부터 ‘웨이모 드라이버’가 탑재된 아이오닉 5 차량의 초기 도로 주행 테스트를 진행한 뒤, 수년 내에 ‘웨이모 원’ 서비스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현대차 글로벌 최고운영책임자(COO) 호세 무뇨스 사장은 “양사는 사람들의 이동 안전, 효율성,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며 “아이오닉 5는 도로 안전 개선을 위한 웨이모의 혁신적 기술 구현에 있어 이상적인 차량으로, ‘웨이모 원’ 서비스의 확장에 맞춰 새로운 제조 시설인 HMGM A에서 적기에 상당 수의 차량을 생산할 준비가 되어 있다. 양사는 이번

파트너십을 시작으로 추가적인 협업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그룹 AVP본부장 송창현 사장은 “현대차는 최근 자율주행 차량 판매 파운드리 사업을 통해 글로벌 자율주행 기업들에게 SAE 기준 레벨 4 이상의 자율주행 기술 구현이 가능한 차량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 같은 사업의 첫 시작에 있어 업계 리더인 웨이모는 최상의 파트너”라고 말했다.

현대차는 하드웨어 이중화, 전동식 도어와 같은 자율주행 특화 사양을 적용해 아이오닉 5를 웨이모에 인도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LGD OLED TV·모니터 ‘일주기 리듬 인증’ 획득

LG디스플레이는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TV 및 모니터 패널 전 모델이 미국 내 안전 특화 인증기관 ‘아이세이프’의 ‘일주기 리듬 인증’을 업계 최초로 획득했다고 6일 밝혔다.

아이세이프는 국제조명위원회(CIE) 기준에 따라 멜라토닌 분비에 영향을 주는 유해 블루라이트 방출량을 정밀하게 측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일주기 리듬 보호 지수(CPF)’를 개발했다.

LG디스플레이 OLED TV 및 모니터 패널은 유해 블루라이트 비중이 업계 최저 수준인 36%에 불과해 일주기 리듬 인증 중 최고 등급(CPF 50)을 획



LG디스플레이 OLED TV 및 모니터 패널이 아이세이프 ‘일주기 리듬’ 인증을 받았다. (왼쪽부터) LG디스플레이 진민규 기술위원이 아이세이프 폴 브로일스 디스플레이 인증위원에게 인증서를 받은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득했다. 특히 LG디스플레이의 OLED TV 및 모니터 패널은 화소 스스로 빛을 내는 자발광 구조로 우수한 색 재현력을 유지하면서도 생체리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 것으로 분석됐다.

/구남영 기자